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yundai Mipo bags MR tanker newbuildings worth up to \$145m

현대미포조선이 유럽 선사로부터 5만DW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 2+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확정분의 계약금액은 총 802억원이며 이는 2019년 연결기준 매출 대비 2.68% 규모라고 보도됨. 선박의 인도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

China's Ruiyang Shipping splashes close to \$300m on feeder boxships

중국의 Yangzijiang Shipbuilding이 Ruiyang Shipping으로부터 1,8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8+4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2,300만달러이며 인도기한은 2022년까지라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Ruiyang은 현재 20척 가량의 피더 컨테이너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선박은 resale계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Nord Stream 2 starts offshore pipelay in Denmark despite US sanctions

러시아의 Gazprom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Nord Stream 2의 파이프라인 설치 작업을 재개했다고 보도됨. 공사가 재개되는 부분은 지난 2019년 12월 중단되었던 발틱해 인근 Bornholm 섬 남부 지역이라고 보도됨. (Upstream)

Trio in frame as Total closes in on Oman LNG prize

프랑스의 슈퍼 메이저 Total사가 Sohar bunkering과 오만 내 LNG 플랜트 프로젝트 공사를 두고 EPC계약 상대방을 곧 선정한다고 보도됨. 현재 3개의 업체가 후보군에 올랐으며, 미국의 McDermott, 일본의 JGC, 영국의 TechnipFMC라고 보도됨. (Upstream)

현대로템, '차륜형 지휘소 차량' 개발

현대로템 이 움직이는 야전 지휘소로 불리는 '차륜형 지휘소 차량'을 개발했다고 보도됨.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2017년부터 현대로템 주관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해 이번 달에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부품 국산화율도 98%에 달한다고 알려짐.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양산 준비에 착수해 2022년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아시아경제)

두산중공업, 사우디서 7천800억원 규모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

두산중공업이 프랑스 에너지업체 엔지, 사우디 기업 모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7천800억 원 규모의 안부 4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두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2023년까지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